



##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의 찬반 논쟁과 성공적인 통합교육: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의 FGI 내용분석\*

이 학 준\*\* · 권 순 우\*\*\* · 정 병 중\*\*\*\*

### The Pros and Cons of Inclusive Education for Deaf Students and Successful Inclusive Education: An Analysis of FGI Contents of Graduate Students majoring Special Education

Lee, Hakjun\*\* · Kwon, Soonwoo\*\*\* · Jeong, Byungjong\*\*\*\*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pros and cons of inclusive education for deaf students and to explore successful inclusive education. **[Method]** To this end, the focus group interview (FGI) recording data conducted for 10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pecial education were analyzed after transcrip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Result]** First, it is a debate on the pros and cons of inclusive education for deaf students. The pros logic is social and self-esteem development, language ability improvement and potential ability development, positive peer relationships, educational effects of deaf and non-disabled students, and improved awareness of disabled students.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e logic is difficulty in communication, lack of expertise of general teachers, negative perceptions of non-disabled students and passive attitudes of special teachers, lack of learning devices for deaf students, and alienation from remote classes of COVID-19. Second, for the successful inclusive education of deaf student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eachers, non-disabled students to deaf students, and to develop the expertise of special teachers and inclusive education homeroom teachers. At the social level, it was proposed that the government and schools need to improve systems such as administration, finance, and device support. **[Conclusion]** In the inclusive education of deaf students, there is a problem in the gap between ideal and reality. For successful inclusive education, obstacles to reality must be removed. In a school that can be called a small society, we should be able to experience a society that lives together without distinction between disability and non-disability through inclusive education for deaf and non-disabled students.

**Key Words:** Deaf students, inclusion education, successful inclusion education, sociality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8099920).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소장(ksww1114@hanmail.net)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공동저자, 가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Kaya Univers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합교육은 교수, 학습에 대한 특별한 이론에 기본을 둔 철학인 동시에 실제이다. 이러한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동등한 기회에서의 질 높은 교육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은 권리와 평등을 주요 이념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정의를 요구한다(정동영, 2017). 우리나라는 2007년 5월에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1조에는 통합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신진숙, 2013).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법에 명시된 통합교육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통합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육과정 조정, 보조 인력 지원, 학습 보조기기 지원 등의 각종 지원을 통하여 학생이 교육과정을 장벽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사회·심리적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통합교육은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형태이며, 장애학생과 부모의 당위적인 교육권의 실현이며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 교육, 학업성취와 사회화의 긍정적인 기대, 다양한 경험과 인성 발달의 기회 제공 등의 이점이 있으나(유은정 외, 2010), 통합교육 이념의 정당성과 실천 과정상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통합교육 환경이 청각장애학생에게 최적화된 환경이 아닌 경우가 많다(김병하, 2007). 우리나라 청각장애학교 교사는 전반적으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고등학생이 되어 청각장애학교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청각장애학생의 역 통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또래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최성규, 김기생, 2004).

우리나라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장점으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완전 통합 배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우리나라 특수교육 통계 현황 중

청각장애학생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782명, 특수학급은 687명, 전일제 통합학급 형태인 일반학급에 1,801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18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전일제 통합학급인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박미혜, 2020).

1994년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이 시행되었지만 청각장애학생은 2000년 초반까지 분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일반 학교 진학률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공와우가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2000년 초기에 청각장애 영·유아의 이식률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 이 시기에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청각장애 영·유아들이 2000년 중·후반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이들의 대다수는 일반 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이다(허명진, 2017).

통합교육과 관련된 동향 및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통합교육 현황을 살펴 보거나(강종규, 최나리, 2019; 김기용, 김삼섭, 2016; 김명희, 곽승철, 2015; 김봉세 외, 2014; 이숙향, 2010; 조태곤 외, 2014), 특정교과영역이나 교수방법(이경림, 2011; 정미애, 최명숙, 2018)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영역별로도 통합교육과 관련된 연구들(강종구, 2013; 권순우, 2010; 김선애, 2008; 김선애, 최성규, 2009; 문소영 외, 2017; 박미혜, 권순우, 2020; 박은혜, 임장현, 2010; 염지혜, 이숙향, 2016; 이정우, 이은숙, 2012; 이현주, 박은혜, 2018; 장미순, 김은경, 2011)이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장애 영역에서 다각도의 동향 분석들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송설비, 이예다나,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찬반 논쟁과 성공적인 통합교육 방향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찬반 논쟁과 성공적인 통합교육 방향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찬반 논쟁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현장에서 특수교사로 일하며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의 의견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논쟁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론적 논쟁을 벗어나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서 청각장애학생의 현실을 알아보고, 대학원생의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현장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현장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찰된 현상을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성공적인 통합교육 또는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방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생각은 이론을 넘어 현장 경험에서 배운 지혜가 바탕

이 된다. 따라서 현장 중심으로 실천적인 방안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찬반 논쟁과 성공적인 통합교육 방향을 탐구하는 데 필요하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찬반 논쟁과 성공적인 통합교육에 대하여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이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둘째,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청각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 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들을 상대로 청각장애 통합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성공적인 통합교육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하였다. FGI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FGI를 활용하여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특히 FGI는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확장하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심층 면접보다 참여자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의견을 도출하는데 긍정적인 방법이다(원성욱 외, 2014).

### 1.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석사과정 1

학기에서 6학기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Table 1> study participants

| participants | course        | major  | semester | inclusive education for deaf students (yes/no)              |
|--------------|---------------|--|----------|---|
| A            | Master course |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 1        | special class teacher, inclusive education experience (yes) |
| B            | Master course |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 1        | special class teacher, inclusive education experience (yes) |
| C            | Master course | special early childhood education                            | 2        | kindergarten teacher, inclusive education experience (yes)  |
| D            | Master course | special early childhood education                            | 2        | kindergarten teacher, inclusive education experience (yes)  |
| E            | Master course | special early childhood education                            | 4        | kindergarten teacher, inclusive education experience (yes)  |
| F            | Master course | special early childhood education                            | 4        | kindergarten teacher, inclusive education experience (yes)  |
| G            | Master course | education for intellectual learning development disabilities | 2        | special class teacher, inclusive education experience( yes) |
| H            | Master course | education for intellectual learning development disabilities | 4        | special class teacher, inclusive education experience (yes) |
| I            | Master course | education for intellectual learning development disabilities | 6        | special class teacher, inclusive education experience (yes) |
| J            | Master course | education for sensory moter development disorder             | 4        | special class teacher, inclusive education experience( yes) |

## 2. 자료수집 절차

연구참여자가 선정된 후 이들을 대상으로 FGI를 하였다. FGI는 이수희, 유태명 (2008)이 사용한 Krueger(1998)의 지침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 지침 사항에 따라 진행되었다.

1단계, 각 참여자에게는 미리 전화나 메일로 개별적으로 의뢰를 하고, 인터뷰 2주일 전에 인터뷰와 관련된 안내 메일을 보냈으며, 인터뷰 하루 전에 전화로 참석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FGI에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사전에 생각해보고 오도록 안내하였다.

2단계, 인터뷰 진행은 미리 계획된 인터뷰 계획에 따라 진행하였고,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ㄷ’자 형태로 의자를 배치하여 물리적 환경을 수정하였다. 인터뷰에 대한 개괄적 안내 및 모임에 대한 감사 인사, 인터뷰하게 된 연구 배경과 인터뷰 진행 지침 안내를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또한 녹음된 정보는 연구를 위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고, 모든 내용은 녹음되었다. 인터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사회자 및 중재자(mediator) 역할을 담당하였고, 필요에 따라 토론 내용과 관련된 추가 질문을 추가하거나 참여자 의견에 관해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또한 사회자는 제시된 질문을 하여 참여자들이 질문에 응답하도록 진행하였으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자기 경험과 의견을 진술하도록 격려했다.

3단계, FGI 종료 직후에는 토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아이디어, 기대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 기타 토의 중 모호했던 부분이나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4단계, 전체 FGI 종료 후 분석과정에서는 다양한 포커스 그룹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과 형태 즉 연구참여자가 사용한 용어의 의미, 맥락, 내적 일관성, 의견의 빈도, 의견의 규모, 의견의 강도, 반응의 특이성 등을 찾고자 하였다.

FGI는 D대학교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실시되었다. FGI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동시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의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된 자료의 양은 ‘글자 크기 10, 줄 간격 160, 자간 0’으로 작성했을 때 A4용지 30쪽이었다.

### 3. 자료 분석

전사된 자료는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찬성 논쟁과 성공적인 통합교육 방향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마치고 특수교육 전문가 두 명에게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적절성 그리고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의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이 연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및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권리 및 보호로서 익명성 보장과 연구 참여 거부나 중단 권리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서명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전사된 면담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모두 반영하여 최종 분석자료를 완성하였다. 셋째, 자료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지속해서 충분한 연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특수교육 전공 교수 2명에게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적절성과 분석된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넷째, 자료 분석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의 진술 중 명확히 이해되지 않은 내

용은 해당 연구참여자에게 연락하여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정확한 자료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옥민옥, 표윤희, 홍정숙, 2020).

###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는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찬반 논쟁과 성공적인 통합교육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특수교육전공자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분리되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1.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찬반 논쟁

통합교육의 당위성은 교육 기회의 확대 및 보장과 교육적 당위성과 도덕적 당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의 학교에 다닐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이대식 외, 2018).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대학원생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분리되어 있어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자신의 의견에서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였다. 그 근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1)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찬성

청각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은 청인학생에 비해 발달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 유아기 때부터 농과 난청으로 인해 마주하는 지속적인 장벽은 좌절과 무력감이 학습되도록 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청력 손실의 정도가 클수록 그 빈도와 정도는 높아지는데 이는 결국 정서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찬성하는 의견이다.

##### (1) 사회성과 자아존중감 발달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찬성하는 쪽에서 가장 많은 근거로 주장한 것은 청각장애학생의 사회성 발달과 자아존중감 향상이다. 사회성 발달이나 자아존중감 향상은 고립이나 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또래들과 함께 배우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또래 집단과 함께 배우고, 생활을 통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면서 사회성이 향상된다고 말한다. 통합

교육을 찬성하는 대부분 이유는 특수학교에서 분리 교육 보다 통합교육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저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지원하며 직접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하는 사람으로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 유형의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분리 교육을 받고, 학령기에 마땅히 겪어야 할 학습 경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효과성은 이미 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과 언어능력이 향상되고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마련되며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G)

학교는 작은 사회이며 아이들의 사회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포래입니다. 아이들은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며 이는 포래끼리 있을 때 발달이 많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포래는 아동의 사회성, 가치관, 언어 그리고 도덕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의 역할을 합니다.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 상황, 문제해결력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교육은 청각장애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H)

통합교육을 받은 청각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성, 자존감, 독립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교육의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비장애학생도 청각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여러 인간의 개인차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장애에 대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학생을 도와주고 돌봐 주는 것을 학습할 수 있고, 적절하게 돕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장애학생은 청각장애학생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발달시킬 수 있고,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법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 참여자 J)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때, 청각장애학생과 같은 반이었는데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데 거의 문제가 없었고 잘 지냈습니다. 그 당시 특수교육실무사는 다른 중증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청각장애학생이 있는 우리 반에는 지원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필기를 할 때는 짝꿍이 청각장애학생에게 필기 노트를 보여주거나 수업의 순서를 알려주어서 잘 따라올 수 있었으나 한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인력 확충(순회 교사 지원, 특수교육 보조 인력 지원) 등의 방안으로 보완이 잘 된다면 통합교육을 하는 데 장점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물리적 통합교육만으로는 청각장애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적응하기도 힘들기에 지속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학생의 사회성과 교우관계를 위해서는 통합학급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학급에서 부딪혀야 할 숙제들이 많고, 그 숙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특수교사, 일반

학급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F)

## (2) 언어능력 향상과 잠재적 능력 개발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찬성하는 근거로 언어능력 향상과 잠재적 능력 개발이 사회성 발달 다음에 많은 근거가 제기되었다. 청인학생과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이 구어 능력이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구어 발달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적 능력 또한 개발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은 통합교육 환경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고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청각적인 자극을 받게 되며 언어 표현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어휘와 바른 언어 표현 방식의 모방을 통해 배우고, 배운 것을 직접 사용하며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언어 사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독려합니다.  
(연구참여자 G)

청각장애학생의 경우에 인지 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통합교육 환경에서 또래들과 함께 공부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로 인해 언어적 상호작용이 어려워 언어 발달은 더디지만 대체로 문장력과 독해력은 평균 초등학교 3~4학년, 수학은 평균 5학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조정,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구 제공 등의 물리적, 교수적 조정 및 수정이 바탕이 된다면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A)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 윌리엄 제임스는 잠재적 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평생 인간은 자신에게 잠재된 능력을 불과 5~7%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모든 능력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기업가나 발명가처럼 자신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재능력을 찾아내지 못하여 일부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의 가능성은 무한하고, 어느 방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장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청각장애학생은 청각적인 영역에서 결함이 있을 뿐이지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무한한 잠재력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령기 청각장애학생은 분리 교육을 통해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하는 것은 잠재력을 개발해서 펼치는 길을 막는 일입니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통해 또래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숨겨진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G)

첫째, 일반 학교 안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이 증설되어 통합교육에 관한 관심과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둘째, 청인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가 많으며 가능합니다. 셋째, 직

업 선택과 교육에서 유리합니다. 넷째, 청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C)

### (3)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

통합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가진 또래와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신들과 타인의 관계를 형성하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덜 갖게 된다(강종구, 엄수정, 홍애령 역, 2020).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이 기대됩니다. 지금 저는 일반 유치원의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경험을 미루어 볼 때, 비슷한 장애 정도를 가진 유아 중에 시간제 통합으로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번갈아 가며 교육을 받는 유아와 완전 통합 형태로 통합학급에서 종일 교육 받는 유아의 또래 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장애 정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통합 형태로 속해져 있는 유아의 또래 관계가 훨씬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린 유아에게도 시간제 통합을 하는 유아에게 편견이 생기고, 또래 관계 형성에 장애가 생기는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일부 시간만을 특수학급에 지내는 유아의 또래 관계 형성도 어려운데, 특수학급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와 관련 없이 모든 유아가 한 공간에서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어려움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E)

첫째, 평균 청력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기 청력의 한계를 사회적으로 빠르게 보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둘째, 통합교육의 과정에서 비장애인들 역시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증진하게 됩니다. 셋째, 특별히 분리되지 않는 일반적인 교육환경에 노출되어 노멀(normal)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I)

첫째, 청각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교육을 받으며 '함께 하는 사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둘째, 비장애 유아는 청각장애 유아와 함께하는 경험으로 인해 배려심과 이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름'에 대해 실생활에서 직접 배울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유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통합교육에서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궁극적인 사회에서의 통합이 교육환경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회는 결국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기부터 즉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준비하는 학교 안에서부터 통합환경을 제공해 주고, 그로 인해 궁극적인 사회에서의 통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E)

### (4)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교육 효과

통합교육에서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육적 효과는 기능, 태도, 지식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은 태도의 차원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학생은 또래 학생과 생활하면서 태도, 인성 등의 영역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함께 살아가야 할 장애와 비장애학생은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태도와 인성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에서 변화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들은 일반인의 지능을 지녔으면서도 음성언어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어 발달의 지체를 초래합니다. 단순히 듣기장애만이 아니라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에서도 어려움을 보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한은 인성적, 사회적 및 직업적 적응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들의 잠재 가능성보다 문자언어를 통한 학업성취 수준은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청각장애학생들은 또래들의 적절한 언어적 자극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 발달 및 사회성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또래들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통해 청각장애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로 통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사회통합을 준비함으로 청각장애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참여자 B)

비장애학생들은 정교하게 고안된 풍부한 교수자료 및 교육 방법을 통해 학습효과를 증진하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비장애학생, 경계선급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형성이다(하버트 스펜서)”라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교육이란 올바른 인격 형성에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인가를 학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학문의 과정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나침반 같은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정서적인 측면이 성숙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책임감, 리더십, 공동체 의식이 함양됩니다. (연구참여자 B)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있어서 사회성과 학업능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성 면에서 보면 청각장애학생들은 인지적인 어려움이 없기에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서 비장애학생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 의미를 모두 다 같이 느낍니다.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영화도 보고 싶고, 반 친구들과 같이 놀러도 다니고 싶은 생각이 같지만 통합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고 점차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또한 학습적인 부분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은 인지적인 어려움이 없으므로 비장애학생들이 배우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함께 배우고 이해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청각장애학생들이 분리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가 어려우므로 교육내용이나 성취기준을 은연중에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학업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각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H)

**(5)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에서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장애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장애학생은 분리교육을 받아야 하면 일반적인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서 비장애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와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변화한다. 장애학생 역시 자신과 같은 인간이며 존중받아야 하면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과거보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유아기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며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는 통합교육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유치원을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통합교육'과는 반대로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인데, 장애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B)

어릴 때부터 분리된 교육환경에서 자랐을 경우 사회에 나가서 통합되기 어렵기에, 교육 현장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자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해심 및 배려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유아, 비장애유아 모두 함께 생활하면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통합학급에서 청각장애유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장애유아라고 라벨링을 하고 분리 교육을 한다면 유아의 부족한 부분이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유아나 장애유아나 모두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나 분리 교육에서는 장애유아의 단점이 더 부각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 이 점을 보완하려면 통합교육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E)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특수학교의 수가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즉, 청각장애학생의 특수학교나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경감됩니다. 장애이해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한 구성원이 되었을 때 서로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분리 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B)

**2)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반대**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반대하는 근거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일반교사의 전문성 부족, 비장애학생의 부정적인 인식과 특수교육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기기 부족이다.

**(1) 의사소통의 어려움**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청각장애학생이 교사와 소통을 하지 못하면 교사가 전달하는 교과 지식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만큼 교사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에서 강의(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비장애학생과의 학력 격차는 벌어진다. 교사가 수업에서 전달하는 소리를 학생이 듣지 못하면 소통이 단절되어 교육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교육적 성취 또한 어렵다. 그리고 또래 친구와의 소통이 어려워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통합교육에서 또래 친구와의 자연적인 관계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생활 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통합교육에 대한 찬반을 논하자면,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저의 대답은 '반대'입니다. 물론 통합교육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통합교육의 취지는 매우 공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의 주요 쟁점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청각장애학생에게 적합한 '학습권' 보장입니다. 청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의 주요 부분은 교사, 학생, 또래와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일반 학교는 청각장애학생과 적합한 의사소통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학생은 더 큰 어려움에 접합니다. 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는 일반 과목 교사, 특수교사 모두 매우 극소수입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어 통역사 혹은 속기사 배치와 고용에는 예산 편성부터 인력확보까지 매우 여러 측면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수어 통역사나 속기사가 배치되더라도 그들이 수업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 등 학생의 모든 학교생활을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참여자 1)

구화를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학생 역시 일반 학교생활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과거보다 학급 당 인원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에 30~40명 사이의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청각장애학생만을 바라보며 수업을 할 수도 없는 환경이며, 보청기를 통한 청력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사실상 수업에 소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각장애학생을 배려하여 소통하는 학급문화를 이루려면 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수교사로서 학급 배치를 앞둔 청각장애학생에게 통합교육 환경은 무조건 권장하기보다는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 통합교육 환경의 선택은 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담당 장학사, 교육청 예산 관련 담당 장학사 등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구참여자 1)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우리 반 친구 중 청각장애학생이 있는데, 해당 학생은 어릴 때 의료사고로 귀의 신경을 상실하여 인공와우를 해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청력 손상이 심해 아예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청각뿐만 아니라 뇌병변장애도 있어

휠체어를 타고 있으며, 발에 강직이 심해 스스로 보행을 못 해요. 또, 지적장애도 있어 신변, 식사, 이동 모든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수업하거나 다 같이 놀 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어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 시선을 끌기 어렵고, 학생도 사물에 대해서는 금방 흥미를 잃고 집중이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반 학생이 워낙 중도·중복이 심하고 반 친구들도 자폐성장애훈생들이 대부분이라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청각장애학생을 보면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참여자 7)

앞에서 연구 참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통합교육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보조교사의 지원이 요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이 지체되는 경향을 보이며 학습에 대한 흥미가 감소 된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과 교사, 청인아동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적절하게 학습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교사의 지원이 요구된다(이병권, 2001).

**(2) 일반교사의 전문성 부족**

일반교사로서의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교사는 청각장애학생 지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한계와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담임교사를 도와줄 보다 전문적인 지원인력 확대와 협력을 원하기도 하였다. 담임교사로서 청각장애학생에게 제공해 줄 교육적 서비스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기도 하였고,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체계적인 지원 및 담임교사와의 협력을 바라고 있었으며, 담임교사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희망하기도 하였다(박미혜, 2019).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알맞은 물리적 환경 조정,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통합학급 교사의 교수적 조정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밝고 동일한 조명 밝기를 유지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을 등지고 앉게 해야 합니다. 교수적 조정 및 수정 측면에서는 비디오와 동영상과 같은 시각 자료는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강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합학급의 일반교사는 이러한 점을 잘 알지 못해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들을 일반아동들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장애로 인한 위축, 친구의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적응·충동적인 행동이 보이는데, 일반교사는 이러한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교사는 청각장애학생 지도에 대한 연수에 참여하여 지도 방법에 대해 전문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 특수교사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학생 지도를 위한 물리적 환경 수정 방법, 학급 운영 방안,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문제행동 이해 및 중재 방안 등에 대해 연수를 지속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A)

청각장애아동이 통합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요인이 '또래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는 청각장애아동이 통합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청각장애학교로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일반 학교 교사의 전문성 결여'로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F)

최상배(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농문화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 학생은 실제로 특수학급 교사 중 농인 교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며 농 교사는 자신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청각장애학생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학생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교사와 대화하고 싶고, 농문화를 이해하고 알아주길 바라지만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가운데 농 교사가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현장에 있어서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각장애학생의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연구에서 청각장애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거나, 우울함이나 예민한 감정 등이 높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걱정, 불안이 높은 편이라고 하기도 하였다(박미혜, 2019). 통합학급 교사는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와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학급 교사와 관리자(교장·교감)에 대한 심도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이병권, 2001).

### **(3) 비장애학생의 부정적인 인식과 특수교사의 소극적 태도**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에서 비장애학생은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부정적 인식을 하는 이유는 통합교육의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을 만나고 함께 소통하고 생활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통합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어차피 세상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일반학생들은 '청각장애'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친구 앞에서 놀리는 말을 하거나 일부러 큰 소리를 내거나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청각장애인 특성, 문제행동, 의사소통 방법,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가 잘하는 것 등 장애 인식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청각장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각각의 학생들이 가진 장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소리'에 대해 각자 경험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또래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청각장애학생만 배려를 받는 것이 아닌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A)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특수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함께 협력하여 통합교육을 실행해야 하지만, 특히 특수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학급 일반교사가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고 소극적인데 특수교사도 똑같이 한다면 통합교육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면서 조금씩 함께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사가 통합학급 교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각장애학생의 언어, 학습, 의사소통, 문제행동 특성과 지도 및 행동 중재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A)

**(4)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기기 부족**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 청각장애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기가 충분하게 보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특수학교에서는 학습 기기가 충분하게 보급되고 있지만, 반면에 통합학급에서는 학습기기가 부족하여 청각장애학생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 연구참여자의 말을 들어 확인할 수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적 차원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자신들의 문화 자체를 인정하고 청각장애학생이 있다면 그 학급에 수어 통역사가 100% 배치가 되며 그 외에 특수교육지원인력(보조인력)이 배치가 되는 즉, 100% 완벽하진 않아도 그 학생을 위해 그 학급에서만만큼은 장애로 인해 언어적 장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현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허나,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에 통합교육을 받는 청각장애학생들에게 과연 통합교육이 100% 더 좋다고 하며 100% 찬성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좀 더 존중받을 수 있고, 그들의 개별적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연구참여자 C)

듣기 능력의 결함이 크면(잔존청력 활용 불가) 대부분 통합교육환경에서 지원 제공이 어렵습니다.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특수교육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조공학기기가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학생 수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또한 일반 학교보다는 특수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학교 청각장애학생들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과 법에 관한 연구와 제정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 내에 있는 공통교육과정은 일반교육의 보편성을 근간으로 편성·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들의 경우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국어, 영어, 체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제도적 부분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B)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학생이 수어통역사를 통해 일반학급에 통합되는 경우 의사소통의 상대가 제한되는 교육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수어를 사용해 독립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

한 청각장애 특수학교보다 더 제한된 교육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을 지지하는 전문가 중에서도 청각장애학생들을 그룹 지어 일반 학교에 배치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즉, 일정한 수의 청각장애학생들을 모아서 교육함으로써 필요한 전문가와 서비스, 기자재들의 제공이 더 쉬우며, 청각장애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원한다면 수어를 사용하는 작은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연구참여자 B)

청각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를 벗어나 일반 학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보청기를 비롯한 청각학적 지원이 열악해진다. 지역청별 혹은 교육청 본청에 청각사를 지원하여 통합된 청각장애학생의 보청기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학생의 교육과 재활에 효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병권, 2001).

#### **(5) 코로나19의 원격수업에서 소외**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온라인 수업 등의 새로운 표준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장애학생이며 특히 청각장애학생은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어려움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과 자막이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어 통역사가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청각장애학생은 수업 내용을 들을 수 없어 이해하는데 어려워하고 이에 따라 학력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원격수업을 통해 청각장애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자막 없이 나오는 PPT 화면이나 교사의 입 모양으로는 청각장애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대부분을 사실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탈자가 많아 자동 자막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어는 요약식으로 통역을 하고, 자막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수어 통역과 자막이 둘 다 나와야 합니다. 당연해야 하는 학습지원이 청각장애학생들이 넘어야 할 산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B)

청각장애는 인지 기능 그 자체보다는 말을 사용하는 다수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입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교육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나 태도적 장벽과 같은 것 때문에 학습 활동에서 제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학급에 통합된 청각장애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의 말을 이해하거나 수업 활동에 참여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통역사가 있을 때조차도 집단 활동이나 토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연구참여자 C)

청각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학급 상황이 많아 적절하지 못한 교육을 받을 확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청각장애학생들의 개별적 교육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아동과 가족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양식, 아동의 의사소통 수단, 잔존

청력의 사용 가능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참여자 E)

청각장애학생들의 통합은 대부분 물리적 통합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청각장애학생들은 청인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보다 같은 청각장애인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수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통합환경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청인 동료나 학습 친구들과의 유대를 증진하는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각 학급 아이들이 청각장애학생의 수준, 수어 사용의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그 학생의 의사소통 수단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통합교육이 물리적 통합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각장애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없다면 지속적인 좌절을 가져오며, 사회적 기술의 발달이 더디게 될 뿐 아니라, 많은 외로움을 가져오는 부정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구참여자 D)

청각장애학생이 통합교육에서 소외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또래 친구와 상호작용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과 온라인 수업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시스템과 기기가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이 청각장애학생에게 또 다른 학습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사회적 통합과 교과과정 통합, 장애 지원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 2. 청각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방향

성공적인 통합교육 또는 효율적인 통합교육은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다.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하려면 몇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것인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알아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청각장애학생과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등의 인식 전환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와 학교 당국의 정책과 법 제정 그리고 재정적 지원 등의 제도개혁이 따라주어야 한다.

### 1) 개인적 차원과 인식 전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적 차원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 차원의 제도개혁이다. 인식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은 청각장애학생의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참여,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일반교사의 전문성 함양,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등이다. 이에 대하여 논쟁에 참여한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교 구성원만의 인식 개선으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교육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과거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통합교육에 있어서 ‘장애학생들이 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학급에 장애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반의 장애학생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손해를 입는다.’ 등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는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광역화, 다양화하여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실시하고, 공익 광고와 같은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A)

통합교육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된 환경의 최소화가 청각장애아동에게는 제한된 환경의 최대화로 낙인되지 않을 정서적 또는 기능적 통합교육 환경 구성이 우선 요구되어야 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관점보다는 통합교육의 철학에 대한 일방적인 관심 사항, 즉 정상화 원리에 기초한 청각장애아동 부모의 태도가 결코 청각장애아동의 효율적 교육을 보장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일반학교 교육환경에서 청각장애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일반교사의 전문성 결여가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의 효율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참여자 F)

물리적 통합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교육과정적 통합에 대한 교원연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은 물리적, 사회적, 교육과정적 통합의 흐름으로 발전하였으며,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와 함께 장애학생 및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이 필수적입니다. 물리적(시간적) 통합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물리적 통합을 통해 장애학생은 통합학급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학생들은 절반이 넘는 경우가 일반 학교 일반학급에 통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학급의 물리적 통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은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은 서로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교육과정적 통합은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물리적, 사회적 통합을 넘어 동일한 교수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적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B)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해결방안은 우선 장애인식의 전환이다. 아직도 비장애학생은 장애를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은 격리되어 교육되어야 하며 일반학생과 통합교육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하며 공익 광고에서 반복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사회적 차원과 제도개혁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제도개혁이 요구된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우리는 국가

차원의 전문적이고 질적인 특수교육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 교사의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연수, 수업 지원, 청각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에 농 교사를 배치, 청각장애학생 부모교육의 확대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진단배치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전 학교 내 상담 시, 통합교육환경의 현실적 장/단점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명확히 알리고 학생 입장에서 환경적 및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청각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경우 1:1 수어 통역사 또는 속기사 지원 환경을 갖출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1)

청각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과 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청각장애학생의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참여, 비장애학생의 충분한 이해, 그리고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전문성 함양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등 여러 요소의 합이 어우러진다면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일취월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2)

공교육을 통한 조기교육 시기가 늦은 편이다. 만 2세는 언어의 폭발기, 팽창기, 민감기로 언어를 습득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아동의 발달 편차가 약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3세까 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8조(장애 영아의 교육지원) 따르면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청각장애 조기 공교육의 기회는 3세가 되어야 주어지고 있으므로 조기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조기교육의 기회를 3세 이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B)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통교육과정 국어 및 영어 교과에서는 청각장애학생의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공통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합학급 환경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또래와 함께 학습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A)

청각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인지 기능이 같으므로 보조기구, 인공와우 등의 지원을 받으면 일반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통합교육 환경에서 통합학급 교사의 물리적, 교수적 조정 및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청각장애학생은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공부하며 사회성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발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C)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청각장애학생이 통합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만큼, 통합교육을 위한 개선 사항이 많습니다. 청각장애학생의 높은 질적 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의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연수, 청각장애학생의 수업 지원, 청각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에 능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며, 청각장애학생의 부모와 관련한 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통합교육이 청각장애학생에게 성공적인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연구참여자 D)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해결방안은 충분한 재정과 여건의 구비, 재정적인 지원, 조기교육 실시, 수어 통역사의 배치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개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지원, 교사의 수업과 상담 역량 강화, 부모지원 강화 등이다(최상배, 황윤재, 고은지, 2021). 독특한 교육적 특성을 요구하는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습적, 사회·정서적, 인적 및 행·재정적으로 체계 있는 지원을 하면 통합교육을 받는 청각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이병권, 2001).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각장애 학생 중 수업 시간에 수어 통역사 지원을 받는 학생의 인터뷰에서 통역사가 통역하는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통역사가 어려운 내용은 통역하지 않아서 통역 내용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교사도 인지하고 있었고,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통역사를 구분하여 수어 통역사를 채용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최상배, 2012). 이외에도 학급 내에서의 효율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위해 청각장애학생이 입학되는 학급은 반드시 20여명 정도로 제한하고 청각장애학생이 입학된 학급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이병권, 2001).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성공적인 통합교육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 1. 요약

지금까지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 10명의 연구참여자들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여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찬반 논쟁과 성공적인 통합교육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연구 자료는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 10명에게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관하여 진행한 인터뷰 녹취 자료를 전사하여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총 2시간 30분 내·외였다. 면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인터뷰에서 사용할 질문지를 보내어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된 질적 자료를 연구목적

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찬반 논쟁이다. 10명 중에서 7명이 찬성을 지지했으며 3명은 반대를 하였다.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근거리에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통합시간의 단축뿐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생활의 보장, 또래 집단의 문화 전수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이대식, 김수현, 이은주, 하승준, 2017).”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통합교육의 효과도 있지만, 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역 통합교육이다. 통합교육을 받던 청각장애학생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다시 특수학교로 전학을 오기 때문이다. 물론 통합교육이 이상적이며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실은 이상처럼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 결과 청각장애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좌절하여 특수학교에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이상이 현실에서 실천되었다면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공적인 통합교육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이며 개인적 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며 제도적 차원에서 통합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청기, 인공와우 등의 기기, 재정 지원, 정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 전체의 장애에 대한 의식이 변화해야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장애에 관한 지식은 장애인과 삶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화하기가 매우 어렵다(이대식 외, 2018).” 청각장애학생이 통합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통합교육 현장에서 교육적 통합 및 완전 통합이 수행되기 위하여 통합교육의 요소(물리적, 사회적, 정서적, 교육적 지원)들이 각각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더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할 때 청각장애학생들의 개별화된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송설비, 이예다나, 2020).

## 2. 제언

이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통합교육을 받는 청각장애학생의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각장애학생 당사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통합교육의 찬반 입장과 실질적 효과에 관한 고민과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또 다른 연구는 통합교육을 받다가 특수학교로 돌아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통합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서 성공적인 통합교육

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Cho, T. G., Kim, Y. W., Woo, J. H., Kim, K. I. (2014). Analysis on the Trend of Qualitative Research in Inclusive Educ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5(1), 79-98.  
[조태근, 김용욱, 우정한, 김정일 (2014). 통합교육에서의 질적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1), 79-98.]
- Choi, S. B., Hwang, Y. J., Ko, E. J. (2021). Recognition of Teachers and Deaf Organizations on the Educational Needs and Support Plans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 55-76.  
[최상배, 황윤재, 고은지 (2021). 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 요구와 지원방안에 대한 교사와 청각장애인 단체의 인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4(1), 55-76.]
- Choi, S. K., Kim, K. S. (2004). The Study on Attitudes and Needs of Teachers for Special School with the Hearing Impaired toward Inclus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2), 71-92.  
[최성규, 김기생 (2004).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태도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2), 71-92.]
- Ho, M. J. (2017). A Review of inclusive education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Korea: Related to Cochlear implantation.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8(1), 71-84.  
[허명진 (2017). 국내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소고: 인공와우 이식과 연계하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8(1), 71-84.]
- Jang, M. S., Kim, E. K. (2011). International Research Trend of Intervention for Behaviors of Elementary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in Inclusive Setting.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6(1), 1-24.  
[장미순, 김은경 (2011). 통합환경에서의 자폐스펙트럼 장애 초등학생 대상 행동 중재 국외 연구 동향. **통합교육연구**, 6(1), 1-24.]
- Jeong, D. I. (2017). *The theory of inclusion education for disabled children* Seoul: History of Educational Science. Educational science Publishing.  
[정동일 (2017). **장애아동 통합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Jeung, M. A., Choi, M. S. (2018). Analysis of domestic trends in integrated education research: Focusing on music subjec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4(1), 125-145.  
[정미애, 최명숙 (2018). 통합교육 연구의 국내 동향 분석: 음악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4(1), 125-145.]

- Krueger, R. A. (1998). *Developing questions for focus group results*. Thousand Oaks, CA: Sage.
- Kang, J. G. (2013). Exploration on the Status of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9(3), 197-215.  
[강종구 (2013). 국제학술지 분석을 통한 시각장애 학생 통합교육 현황 고찰. **시각장애연구**, 29(2), 197-215.]
- Kang, J. G., Chio, N. R. (2019). The Comparison of Research Trend by the Types of Disability in Inclusive Educ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8(3), 209-238.  
[강종구, 최나리 (2019). 통합교육에 있어 장애 유형별 연구 동향 비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8(3), 209-238.]
- Kim, B. H. (2007).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in Daegu*. Gyeongsan: Daegu university press.  
[김병하 (2007). **대구특수교육사**. 경산: 대구대학교출판부]
- Kim, B. S., Chung, D. Y., Chung, Y. W. (2014).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Research Trend of Inclusive Education for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 99-128.  
[김봉세, 정동영, 정윤우 (2014). 장애학생 통합교육 연구 동향 분석과 시사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 99-128.]
- Kim, K. R., Kim, S. S. (2016). Trend Analysis of Research on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Using Text Mining,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9(4), 133-157.  
[김기용, 김삼섭 (2016).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통합교육 연구 동향 분석. **지체·중복·건강 장애연구**, 59(4), 133-157.]
- Kim, M. H., Kwak, S. C. (2015). Analysis on the Trend of Experimental Studies for Inclusiv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from 2005 to 2014.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8(2), 145-175.  
[김명희, 박승철 (2015). 초등학교 통합교육 실험연구 동향분석: 2005년~2014년까지.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8(2), 145-175.]
- Kim, S. A. (2008). *The Qualitative Research for Reality,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 on Inclus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Master Degree of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김선애 (2008).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Kim, S. A., Choi, S. K. (2009). The Qualitative Research for Reality,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 on Inclus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4), 471-490.

- [김선애, 최성규 (2009).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471-490.]
- Kwon, S. W. (2010).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chool Adjustment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n Inclusive Educational Setting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9(3), 133-153.
- [권순우 (2010).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언어치료연구**, 19(3), 133-153.]
- Lee D. S., Kim, S. H., Lee, E. J., & Heo, S. J. (2017).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Inclusion Education*. Seoul: Hakjisa.
- [이대식, 김수현, 이은주, 허승준 (2017). **통합교육의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 Lee, B. K. (2001). A Support Plan for the Efficiency of Inclusion Education for Deaf Student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이병권 (2001).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효율화를 위한 지원방안**.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Lee, G. R. (2011). Research Trends of Korean Academic Journals about Co-Teaching in Inclusive Education Setting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0(3), 99-120.
- [이경림 (2011). 통합교육상황에서의 협력교수에 대한 국내 학술지 수록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 10(3), 99-120.]
- Lee, H. J., Park, E. H. (2018).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 A Study of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General Education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Special Education*, 17(3), 127-155.
- [이현주, 박은혜 (2018). 청각장애 초등학생을 담당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과 경험 연구. **특수교육**, 17(3), 127-155.]
- Lee, J. W., Lee, E. S. (2012). An effect of inclusive education fulfilled in deaf school on the perception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oward students with hearing.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3(1), 127-141.
- [이정우, 이은숙 (2012).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시한 통합교육이 청각장애학생의 건청학생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3(1), 127-141.]
- Lee, S. H. (2010). Review of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regarding Secondary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3), 339-369.
- [이숙향 (2010). 국내 중등 통합교육 연구의 동향 및 향후 과제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339-369.]
- Lee, S. H. & Yoo, T. M. (2008). Focus Group Interview for the Development of an In-service Educational Program on the Practical Problem Focu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0(3), 107-129.
- [이수희, 유태명 (2008).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3), 107-129.]
- Moon, S. Y., Lee, S. H., Ko, M. A. (2017). Analysis of Trends in Qualitative Research on

-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through Qualitative Indicator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17(1), 47-74.  
[문소영, 이소현, 고미애 (2017). 자폐 범주성 장애 학생 통합교육 관련 질적연구의 동향 및 질적 지표 분석. *자폐성장애연구*, 17(1), 47-74.]
- OK, M. W., PYO, Y. H., Hong, J. S. (2020).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difficulties related to college life experience and support needs of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or brain lesion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1(4), 93-124.  
[옥민옥, 표윤희, 홍정숙(2020). 자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생활 관련 어려움과 지원요구에 관한 질적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1(4), 93-124.]
- Park, E. H., Lim, J. H. (2010). Inclusive Education of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Research Trend and Support Strateg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9(3), 5-24.  
[박은혜, 입장현 (2010). 지체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지원방안. *특수교육*, 9(3), 5-24.]
- Park, M. H. (2020).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current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Doctor Degree of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박미혜(2020).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Park, M. H., Kwon, S. W. (2020).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current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1(4), 125-154.  
[박미혜, 권순우(2020).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1(4), 125-154.]
- Shin, J. S. (2013). *Inclusion Education*. Seoul: Yangseowon.  
[신진숙(2013). *통합교육*. 서울: 양서원.]
- Song, X. F., Lee, Yedana. (2020).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Inclusion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ment students: A Review of Research from 2007 to 2019 in Korea.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1(1), 21-39.  
[송철비, 이예다나(2020).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분석: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1), 21-39.]
- Yeum, J. H., Lee, S. H. (2016). Review of Research Trends and Interventions Regarding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5(4), 111-140.  
[염지혜, 이숙향 (2016).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연구 동향 및 중재방법 고찰. *특수교육*, 15(4), 111-140.]
- Yoo, E. J., et al., (2010). *The understanding and curriculum education of deaf children*. Seoul: Hakjisa.  
[유은정의외, 2010]. *청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과교육*. 서울: 학지사]

Won, S. Y., Kwon, S. W., Kim, J. S., Kim, S. Y., (2014). Status and challenges of access to sign language education for deaf childre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5(4), 105-129.

[원성옥, 권순우, 김지숙, 김선영 (2014). 농아동의 수화교육 접근 현황 및 과제: 농인 당사자 입장에서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4), 105-129.]

<국문 초록>

##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의 찬반 논쟁과 성공적인 통합교육: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의 FGI 내용분석

이 학 준 · 권 순 우 · 정 병 중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찬반 논쟁과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탐구하는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녹취 자료를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찬반 논쟁이다. 찬성 논리는 사회성과 자아존중감 발달, 언어능력 향상과 잠재적 능력 개발,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교육적 효과,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다. 반면에 반대 논리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일반교사의 전문성 부족, 비장애학생의 부정적인 인식과 특수교사의 소극적 태도,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기기 부족, 코로나19의 원격수업에서 소외 등이다. 둘째, 청각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교사, 비장애학생의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전환, 특수교사와 통합교육 담임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국가, 학교에서 행정, 재정, 기기 지원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결론]**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 현실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우리는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사는 사회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성공적인 통합교육, 사회성

논문 접수(Received): 2022. 05. 11. / 심사 시작(Examined): 2022. 05. 11. / 게재 확정(Accepted): 2022. 06. 09.